**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8,
자연법 윤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자연법 윤리입니다.

좋아요, 신성한 명령 이론을 논의했으므로 도덕 이론의 또 다른 주요 신학적 전통인 자연법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자연법 윤리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자연법 윤리의 주요 주제 중 일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텔로스, 목적, 목표 또는 기능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인공물, 시계, 신발, 배,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목적, 끝, 그들이 제공해야 할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됩니다. 인간이 기능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은 인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장기를 다양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된 방식과 우리의 설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다양한 기능 에서 특정한 도덕적 진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적 대상과 인간의 텔로스의 근원은 신입니다. 그는 세상을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설명적이고, 다른 일부는 처방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우리는 다양한 중력 법칙, 역제곱 법칙, 열역학 법칙, 강력과 약력, 아보가드로 상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이러한 모든 규칙성은 신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한 것이며, 우리가 아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연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지를 말해주는 규범적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연적 도덕법이나 처방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일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벗어나면, 일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텔로스, 즉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설계 계획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고, 이러한 자연적 처방을 위반하면,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나쁜 결과와 고통스러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이 우리를 합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신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이러한 다양한 자연 법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경각하도록 했습니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것에는 자기 보존, 이해 추구, 자녀 교육,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제, 윤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입니다.

사실, 성경적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시편 40편, 예레미야 31장, 로마서 2장, 히브리서 8장, 그리고 다른 몇몇 곳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적으로 율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을 할 때, 비록 율법이 없더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 사항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며, 그들의 생각이 때때로 그들을 비난하고 다른 때는 그들을 변호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자연스럽고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 듯합니다. 특별한 계시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 알려진 은유입니다. 따라서 주요 자연법 이론가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다양한 법률 범주를 분류합니다. 그는 여기서 도움이 되는 약간의 분류법을 제공합니다. 그의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공동체를 돌본 사람이 공표한 공동선을 위한 이성의 조례이며, 물론 이는 연방 또는 국가 정부에서 지방 정부, 가족,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가장 포괄적인 법의 범주는 그가 영원한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모든 신의 법령의 총합일 뿐이며, 자연법은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원한 법의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 탐구를 통해 알아낼 수 있는 영원한 법의 측면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법의 측면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특정한 기본 원칙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를 수 없는 도덕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든, 기본적으로 인지적으로 기능적이라고 가정할 때, 당신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도덕적 원칙. J. Budziszewski는 그의 작품에서 이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현대 자연법 이론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2차 계율이 있습니다. 이는 1차 계율에서 파생된 도덕적 규범으로, 여전히 일반적인 적용이 있지만, 1차 계율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생각의 일반적인 적용입니다.

셋째, 신성한 법이 있습니다. 신성한 법은 경전에서 발견되거나 표현되는 영원한 법의 한 측면이며, 자연법을 넘어서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탐구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법을 시민 사회에 적용하는 것과 아마도 신성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통법, 정지 표지판, 속도 제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사회가 일정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법입니다.

사회에 제정된 법률 중에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법률을 직접 적용한 법률도 있는데, 미국에서 흔히 있었던 간통죄 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법률은 자연법, 신의 법률 또는 둘 다에서 얻은 특정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추론이나 생각은 다양한 방식으로 왜곡되거나 가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으며, 아퀴나스는 이러한 방식 중 일부를 식별합니다.

그 중 하나는 열정을 통한 것인데,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의한 짓을 했다면, 당신은 과잉 반응을 보이고 그들이 진정한 정의를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생각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성적 열정과 다른 열정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습관은 또한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성적 도덕성과 자연 법칙에 대한 사람의 이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사악한 기질은 아퀴나스가 식별한 또 다른 범주 입니다 . 아마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유전적 소인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향이나 성향에는 특정한 유전적 뿌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아퀴나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악한 관습은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는데, 간통이나 성적 방종과 같은 특정 형태의 불법 행위를 승인하는 사회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는 아퀴나스는 뇌물 수수 승인의 예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란 공동체가 특정 형태의 사악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승인한다면, 당신이 그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자연법에 대한 이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악한 설득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종류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도 특정 철학적 주장에 의해 설득될 수 있으므로, 자연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그 정도로 왜곡됩니다.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퀴나스가 자연법에 대한 생각이 왜곡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지적합니다.

이제 자연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누군가가 거부할 수 있는 도덕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우 사악한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량 살인이든 강간이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회병리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J. Bochenski와 그의 답변입니다. 그는 여기에 몇 가지 답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연 법칙을 부정하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으로 부정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들이 그 자연 법칙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아는 것을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순의 법칙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언가가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는 가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그 개념을 설명하면, 그들은, 글쎄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불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억압하거나 억누르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인종과 두 성별의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실제로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지만, 그것을 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반론에 대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반론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첸스키는 이것이 거짓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답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본색을 발명할 수 없는 것처럼 가치, 적어도 진정한 가치를 발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용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Bochenski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아마도, 아니면 그것은 오래되고 잘 알려진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라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반대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연법 윤리의 모든 통찰력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주목된 것 중 하나는 특정 도덕적 문제나 딜레마에 관해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배 정의의 도덕적 문제. 정의로운 사회에서 재화와 자원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까? 약물 합법화. 약물이 부도덕하더라도, 오락용 약물은 적어도 많은 약물이 부도덕하다면,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오락용 약물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이어야 할까?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떤 경우든 어렵고, 자연법 윤리는 이런 경우에 최소한 도움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행동이 자신의 텔로스를 충족하는지 아닌지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법 윤리에 대한 많은 비평가들은 무언가가 비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따라서 혀는 예를 들어 우표나 봉투를 핥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목적으로 혀를 사용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적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관점에서 신체 기능을 읽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 기관의 가장 자연스럽거나 명백한 용도가 한 가지라는 것이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법 윤리의 지속적인 과제 중 하나 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법 윤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8, 자연법 윤리입니다.